

상황적 범죄예방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 성 언**

국 | 문 | 요 | 약

이 글은 상황적 범죄예방을 둘러싼 두 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상황적 범죄예방의 실천 윤리에 관한 것이다. 상황적 예방 전략들이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도, 일상 활동에 대한 감시의 증가 여부, 그러한 감시가 내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둘러싼 비판과 항변들, 그리고 수용 가능한 실천윤리의 기본 원칙들이 다뤄질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범죄학적 담론과 현대 범죄통제 문화 속에서 상황적 범죄예방이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것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이 범죄의 본질에 대한 사고체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범죄를 바라보는 전망과 전략의 성격은 어떤지, 상황적 예방의 출현은 후기 현대사회에서의 범죄예방에 관한 우리의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함의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의 윤리적·이론적·사회적 측면들을 논하기 위해서 그것에 내포되어 있는 전략, 윤리적 가치, 사회규범과 실천을 둘러싼 다양한 비판과 항변들을 다루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은 이러한 과업을 목표로 하며 그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제시될 것이다.

❖ 주제어 : 상황적 범죄예방, 기회, 배제사회, 범죄전이, 감시, 피해자 귀책

* 이 논문은 2008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경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교수, 사회학박사

I. 들어가는 말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은 현대 범죄학 영역에서 중요한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다. 1980년대 초 영국 내무부의 선도적 발의자인 로날드 클락(Ronald Clarke, 1992)에 의해 처음 주창된 상황적 예방의 접근은 그 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범죄 대응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

상황적 예방의 제도적 성공 - 공공정책과 상업활동에서의 범죄예방을 향한 일반운동의 선구자로서 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담론으로서도 - 은 사회이론가들과 비평가들의 관심을 획득하기에 족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거둔 상당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상황적 예방은 대부분의 범죄학자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다. 좌파 범죄학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며, 나머지 범죄학자들도 대체적으로 상황적 범죄예방의 주장에 무관심하다. 결과적으로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은 비공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되어 왔을 뿐 공식적인 차원에서 거의 활성화되지 못했다. 상황적 예방에 대한 심도 깊은 유일한 비판적 논의는 폰 히르쉬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von Hirsch et al., 2000)가 유일하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학 영역에서의 구조와 행위, 이론과 실천의 문제 등 다양한 이론적 쟁점들을 제기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 예방 기법의 적용을 둘러싼 사회계급간 이해갈등,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의 잠재적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윤리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실천적 쟁점들을 제기한다. 때문에 무관심보다는 적극적인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폰 히르쉬와 그의 동료들(2000)에 의해 제기된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주요 비판들과 이에 대한 클락(2000, 2005)의 항변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논쟁이 갖는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논평 형식으로 덧붙일 것이다. 상황적 예방에 대한 기존 논의들의 비판적 검토는 우리 시대에 지향해야할 범죄예방의 기초적 원리들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쟁점의 지형

1. 상황적 범죄예방의 요지

가. 개 요

한마디로 상황적 범죄예방이란 사회나 사회제도 개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지기회의 감소에 의존하는 예방적 접근을 말한다(Clarke, 1992: 4). 범죄 원인론에 몰두했던 실증주의 범죄학과 달리 상황적 범죄예방의 접근들은 일차적으로 범죄행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즉각적인 환경이나 상황 특징들에 초점을 맞춘다. 즉 매우 특정한 범죄에 초점을 맞춰 가능한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방법으로 즉각적인 환경을 관리, 설계, 조정함으로써 범죄행동에 따르는 노력과 위험은 증대시키고 보상은 낮추고자 하는 기회감소 전략들을 중시한다.

상황적 예방은 1980년대 클락(1980)에 의해 개념적 틀이 제기된 이후, 1990년대 초 지속적인 연구를 거치면서 일련의 전략과 기법들이 주조되었다(Clarke, 1992). 상황적 범죄예방의 전략과 기법들의 범주표는 새로운 조사연구 결과들에 기초하고 다른 범죄 학자들과의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해 온 산물이다(Clarke, 1997; Clarke and Homel, 1997). 상황적 예방 모델의 가장 최근 분류표 코니시와 클락(Cornish and Clarke, 2003)에 의해 집성되었다.

초기의 상황적 예방 프로그램들은 주로 건축과 도시계획의 활용을 강조하는 상황적 설계 접근들에 주목했다(Brantingham and Brantingham, 1995, 1997). 이것은 특정 지역의 범죄 매력성과 유발 요인들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도시 계획가, 보건계획가, 도시 설계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와 불법방해 행동, 그리고 공적·사적 공간에서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을 탐구하도록 유도했다.

최근의 상황적 범죄예방은 특정한 범죄 감소 개입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범죄분석과 증거에 기초한 접근들을 추구한다. 인간의 범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 행위유형, 그리고 즉각적인 요인들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상황적 개입의 구축에 있어 핵심 사안이다. 코니시와 클락(Cornish and Clarke, 2003)은 상황적 범죄예방 모델에서 실행가들

이 반드시 고려해야만 할 다섯 가지 전략적 기법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표 1〉).

〈표 1〉 25개 상황적 예방 기법

노력 증가	위험 증가	보상 감소	자극 감소	변명 제거
1. 표적강화	6. 보호 확대	11. 표적 은폐	16. 좌절과 스트레스 줄이기	21. 규칙설정
2. 시설 접근통제	7. 자연감시 지원	12. 표적 제거	17. 분쟁 회피	22. 지시의 공시
3. 출구 차단	8. 익명성 감소	13. 재물 감정	18. 유혹과 감정 자극 감소	23. 양심 환기
4. 범죄자 우회시키기	9. 장소관리자 활용	14. 시장 분쇄	19. 또래압력 중화	24. 응낙 지원
5. 도구/무기 통제	10. 공식적 감시 강화	15. 이득 부인	20. 모방 단념시키기	25. 악물·알코올 통제

자료: Cornish and Clarke(2003: 90)

첫째, 범죄를 저지르는 데 요구되는 노력을 증가시키는 기법. 둘째, 범죄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기법. 셋째,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을 감소시키는 기법. 넷째, 도발적 자극을 감소시키는 기법. 다섯째, 범죄에 대한 변명을 제거하는 기법 등이다.

이러한 예방 기법의 분류체계는 상황적 예방에 대한 이론적 기초의 확대와 더불어 점차 성장해왔다(Clarke, 2005: 48). 클락의 설명에 의하면, 맨 처음의 분류체계는 합리적 선택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세 가지 주요 범주들(위험과 범죄 노력의 증가, 보상의 감소) 속에 예방 기법들을 위치시켰다(Clarke, 1992). 이 범주들 속에 삽입된 몇몇 특별한 기법들은 다른 이론들로부터 도출되었다. 예를 들면, ‘범죄자 우회시키기’는 일상활동이론에 기초하고 있고 ‘유인의 감소’는 베르코비츠와 짐바르도(Berkowitz and Zimbardo)의 사회심리학적 이론화에 근거하고 있다. 몇 년 후 예방기법의 네 번째 범주인 ‘범죄에 대한 변명의 제거’가 덧붙여졌는데, 이는 사익스와 마짜(Sykes and Matza, 1957)의 중화이론 및 이것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반두라(Bandura, 1976)의 ‘자기면책’(self-exoneration) 개념으로부터 파생되었다(Clarke and Homel, 1997).

가장 최근에 수정된 분류체계는 상황적 예방에 대한 워틀리의 비판(Wortley, 1998, 2001)을 수용한 결과이다. 워틀리는 상황적 예방이 지나치게 기회감소에만 초점을 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자극하고 재촉하고 허용하고 압력을

가하는 상황적 촉발요인들(situational precipitators factors)을 무시했다고 비판하였다. 그의 비판은 행위를 야기하는 데 있어 환경적 단서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심리학적 분석틀과 술집(Homel et al., 1997) 및 교도소(Wortley, 2002)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위틀리는 폐쇄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폭행, 싸움 및 다양한 문제행위들은 부분적으로 빈약한 설계와 관리의 결과임을 잘 보여줬다. 결과적으로 다섯 번째 주요 범주인 ‘자극 제거’가 분류체계에 포함됨으로써 마침내 25개의 상황적 예방 기법들이 완성되었다.

나. 등장배경

상황적 범죄예방 담론이 국제적으로 헤게모니를 갖게 된 것은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개혁가들과 실증주의자들의 의제에 대한 불만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Wilson, 1975; von Hirsch, 1976; Murray, 1990). 1960년대 풍요가 범죄문제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복지자본주의 사회의 기대는 서구사회의 높은 범죄율로 인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높은 범죄율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은 대단했다. 보수주의자들은 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고 그것은 정치영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치가들은 심각한 범죄문제를 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도구화했다. 범죄자에 대한 정부의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는 현실은 행정부의 범죄통제 및 예방정책이 정치 및 사회여론 등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구실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부의 범죄통제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왔던 재할주의 혹은 교정주의 역시 비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려는 수많은 조사연구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범죄율의 증가와 재할주의 이념에 대한 정치적 공세만으로는 상황적 범죄예방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시장지배적인 후기 현대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문화적 과정들과 무관하지 않다. 갈란드(Garland, 2000)는 상황적 범죄예방이 후기 현대성의 맥락에서 일상으로서의 범죄, 높은 범죄율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새로운 실증성과 합리성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현대사회에서 범죄는 명백한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며 더 이상 탈선이 나 비정상적인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범죄는 현대일상의 일부이며 거리의 교통문

제를 다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고 관리될 수 있는 일상적 위험이다(Garland, 1996: 446).

범죄현상이 삶의 일상적 사실이라는 인식은 범죄 및 형사사법 기관들의 철학과 실천 방안들에 대한 공식적인 지각, 통치행위 양식에 중대한 일련의 변화들을 유도한다. 이러한 일련의 변형들로부터 출현하는 것은 실증주의에 의해 인도되었던 형벌-복지 전략과는 비교되는 새로운 전략이다. 그것은 주변집단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개선, 위험과 자원에 대한 보다 나은 관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형사사법 지출의 감소,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새로운 공식적 전략에서 범죄는 사후적 처벌 대상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관리되어야 할 위험으로 인식된다.

그 결과 ‘방어공간’(Newman, 1972), ‘이웃감시’(Jacobs, 1961)에 기초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등 범죄예방에 대한 새로운 기술공학주의적 관점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게리 맑스(Gary Marx, 1995)는 상황적 예방 기법을 공학사회의 특별한 표현으로 이해한다. 전자공학, 전산화, 인공지능, 생화학, 건축학, 재료과학 및 관련분야의 발달은 사회통제와 범죄예방 산업이 발달할 수 있게 된 기술적 토대이다. 기술공학주의적 범죄예방의 목표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통제를 통해 위반행위들을 제거하거나 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요컨대 상황적 예방이 범죄예방 분야에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한 배경에는 범죄의 일상성, 범죄문제에 대한 정치적 반응, 소비자본주의의 발달과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변화, 그리고 새로운 예방기법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공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다. 정치사회적 의미

상황적 범죄예방은 후기 현대사회 통치수단으로서의 범죄예방의 이데올로기와 담론 그리고 그 실천 전략들을 제공한다. 위험의 사전 관리와 범죄 기회의 차단을 강조하는 상황적 예방의 도구와 기법들은 사적인 기업과 사업체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범죄예방의 공공영역에서도 그 원리들이 응용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운용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상황적 예방이 주목되는 이유는 후기 현대사회에서의 통치와 규제가 작동되는 방식, 즉 ‘통제의 착근’(embeddness of control) 현상(Hope and Sparks, 2000: 178)과 범죄 예방 주체들의 파트너십 혹은 책임공유 현상의 확산을 포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Garland, 1996). 착근성이란 ‘깊게 뿌리내려 그 작동이 감춰지는 성질’을 표현하기 위한 어휘이다. 호텔 입구의 안내원이 고객들에게 호텔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호텔이나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인물들을 감시하는 기능도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후기 현대사회에서의 범죄예방의 책임은 비단 공식적인 형사사법체계에만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 공중들은 잠재적인 피해자이면서도 범죄 기회와 유혹이 주어지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가해자이다. 따라서 잠재적 피해자에게도 범죄예방의 책임이 부과된다. 이러한 책임공유의 관념은 협력통치, 즉 거버넌스(governance)에 있어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1980-90년대의 신자유주의 정치 사조와도 잘 부합한다 (O'Malley, 1992). 전문주의와 국가주의적 범죄통제가 근대사회의 주류였다면 후기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의 후퇴와 파트너십, 책임공유에 입각한 범죄통제의 혼합경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비판과 항변

비록 그 양상이 치열하고 깊이 있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적 예방의 논의들을 둘러싼 중요한 논쟁들이 존재한다. 몇몇 비판가들은 상황적 범죄예방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으며, 최근에는 그것이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들, 그리고 그 ‘보수적’ 가치지향성과 정치학에 비판의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다 (O'Malley, 1997; O'Malley and Sutton, 1997; Crawford, 1998; Hughes, 1998; von Hirsch et al., 2000).

하지만 클락(Clarke, 2000)은 상황적 예방의 해로운 결과들은 대개 예견될 수 있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회피하거나 개선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그는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들을 7가지로 요약하고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표 2〉). 비판과 항변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정리될 수 있다.

〈표 2〉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7가지 오해

비판	항변
1. 단순하고 비이론적	1. 세 가지 범죄기회이론에 기초: 일상활동, 범죄유형, 합리적 선택
2.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범죄를 전이시키고 종종 상황을 악화시킴	2. 수많은 사례연구들은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전이는 거의 없음을 보여줌
3. 범죄의 근본원인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림	3. 즉각적인 범죄감소를 달성함으로써 사회에 이득을 줌
4. 범죄에 대한 보수적이고 관리주의적 인 접근	4. 조달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약속하지 않음. 해법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
5. 이기적이고 배제적인 사회 조장	5.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보호 제공
6. 전체주의 사회(Big Brother)를 조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	6. 민주적 과정은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함. 이것들이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불편과 사소한 침해를 감내할 것임
7. 피해자를 비난함	7. 피해자들에게 범죄위험과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역량을 강화

출처 : Clarke(2005: 40)

첫째, 이론논쟁으로서 비판가들은 상황적 범죄예방이 범죄의 원인을 무시함으로써 이론이 아닌 공학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상황적 예방 옹호가들은 그것이 ‘거사-중범 위-미시’의 수준을 아우르는 ‘기회이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둘째, 효과논쟁이다. 비판가들은 상황적 범죄예방이 효과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전이시킴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상황적 예방론자들은 범죄전이의 경험적 근거는 희박하며, 오히려 긍정적인 예방효과가 확산된다는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이 존재한다고 응수한다.

셋째, 윤리논쟁이다. 비판가들은 상황적 범죄예방이 이기적이고 배제적인 사회를 조장하고 피해자의 귀책성을 인정하는 범죄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며,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전체주의의 통제원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옹호가들은 상황적 예방의 효과는 탈계급적이며 인권과 사생활보호와 같은 민주주의 가치와 주요 작동원리들이 전체주의적 감시와 같은 상황적 예방의 예기치 않은 부정적 결과들의 발현을 내재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항변한다. 피해자 귀책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도 상황적 예방은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상황적 예방과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회의적인 비판가들은 기회감소보다는 사회 개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상황적 예방론자들은 기회감소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맞선다. 아래에서는 상황적 범죄예방의 비판과 향변의 핵심 논쟁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가. 이론논쟁

비판가들이 제기하는 상황적 예방에 대한 일차적인 비판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기존 범죄학적 연구결과들은 범죄의 근본 원인이 발생학적인 유전형질, 성격과 양육,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경제적 불평등에서 유래하는 박탈에 있다고 본다. 비판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박탈은 범죄행위의 일차적인 동인, 즉 비행 혹은 범죄 성향이 발달하게 되는 원인이다. 상황과 기회 요인들은 언제 어디에서 범죄가 발생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범죄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은 심리학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개입들을 통해 범죄의 근본 원인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박탈과 범죄성향의 발달 사이에 놓여 있는 복잡한 관계들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요구한다. 이러한 이론적 이해의 형성은 범죄학의 핵심이다. 상황적 예방 옹호가들과 같이 기회와 범죄 사이에 직접적 연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인간행위의 결정인자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기회가 제거되더라도 범죄 그 자체가 제거되지 않고 단지 범죄의 시간적·공간적 분포 양상이 달라질 뿐이다.

클락은 상황적 예방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그것이 단순한 범죄의 ‘선택’ 모델(예, Clarke 1980)에 기초하여 논의되었던 초기모델에서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이 기본 모델은 보다 발전한 합리적 선택의 관점 속으로 확장되었고 일상 활동이론과 범죄유형론에 의해 보완됨으로써 상황적 예방은 보다 강력한 이론적 기초를 가지게 되었다고 반박한다(Clarke, 2005: 41). 이와 같은 ‘기회이론적’ 접근들의 공통점은 범죄를 합리적이고 추론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심리학적 결정이나 계산을 행한 결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클락(1995)은 일상생활에 대한 ‘새로운’ 범죄이론(Garland, 1996)으로서 상황적 범죄예방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범죄추세나 기회구조가 범죄발생의

거시적 측면이고 범죄자가 특정목표를 포착하고 범행에 착수하는 것이 범죄발생의 미시적 측면이라면, ‘상황’이란 범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의 기회를 포착하는 범죄발생의 중범위적 측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적 범죄예방론은 중범위 수준에서 범죄의 기회와 동기가 상호작용하게 되는 맥락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범죄는 세세한 일상 속에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범죄통제 또한 일상과 유리된 비난과 형벌 체계에 의해 작동되기보다는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춰 작동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상황적 예방의 옹호가들 역시 전통적인 범죄학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범죄의 ‘근본’ 원인들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즉각적인 상황과 기회 요인들도 동등하게 범죄에 중요한 인과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성향요인들이 범죄자로 하여금 항시라도 법 위반을 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라면, 범죄기회(유혹)의 인지 또한 범죄자가 범죄를 행하도록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에서 기회는 초기 상황적 범죄예방 옹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범죄발생의 인과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된다.¹⁾

클락은 범죄의 원인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행동이 필연적으로 대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향과 기회 모두 범죄를 생산하는 데 관여한다고 해서 예방이 이 둘을 동등하게 다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범죄 성향보다 범죄기회에 예방 노력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Clarke, 2005: 56). 첫째, 성향 연구에 대한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향을 감소시키는 방법보다 기회와 자극을 감소시키는 방법들이 더 잘 알려져 있다. 둘째, 상황의 변화들은 멀리 있는 범죄의 원인보다 가까운 범죄현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근원과 범죄 사이에는 너무도 많은 매개고리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와 같은 근원들에 초점을 맞춘 행동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상황적 변화들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더 쉽다. 반면 성향 변화의 이득은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오직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1) 클락(2005: 42)은 상황과 기회 요인이 수행하는 네 가지 주요 역할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범죄성향을 지닌 개인들은 보다 많은 범죄기회들과 조우할 때 상당수의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러한 기회들에 규칙적으로 조우하는 것은 이러한 개인들로 하여금 심지어 보다 많은 기회들을 찾도록 유도할 수 있다. 범죄성향이 없는 개인들도 범죄기회와 유혹의 확산에 의해 범죄행위가 유발될 수 있다. 보다 특정화시켜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개인들도 이러한 범죄들을 손쉽게 행할 수 있는 기회들과 규칙적으로 조우하게 되면 특정 형태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요컨대 옹호가들은 상황적 예방이 합리적 선택의 관점, 일상활동 이론, 범죄유형론 등 다양한 기회이론적 관점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공학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 1) 기회는 범죄의 원인이고 기회의 증가가 더 많은 범죄를 유도할 수 있으며, 2) 상황요인들 또한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인식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Clarke, 2005: 43-45).

나. 효과논쟁

상황적 범죄예방 옹호가들은 현재 성공적인 사례보고들이 무수히 많다고 지적한다(Clarke, 1982, 1992, 1995, 1997; Sherman et al., 1997; Smith et al., 2002). 초기 적용사례들은 기회주의적인 재산범죄, 즉 침입절도, 자동차절도, 기물파손 등에 초점을 맞췄으나, 보다 최근에는 거리의 매춘, 음주폭행, 음란전화, 가정폭력, 상업부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강도 등 매우 광범위한 범죄유형들의 예방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Clarke, 1997). 또한 상황적 예방 기법들이 직접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범죄유형뿐만 아니라 그것이 적용되지 않은 범죄나 지역까지 예방 효과가 확산되고 있음을 예증하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Clarke and Weisburd, 1994; Painter and Farrington, 1997; Poyner, 1988).

가장 논란이 많은 쟁점은 상황적 범죄예방이 범죄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양한 방식으로 전이(displacement)시킬 뿐이라는 비판의 진위이다. 클락은 이러한 비판을 신중하게 받아들인다. 그는 이 문제를 상황적 범죄예방의 순 효과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때때로 전이는 해(harm)의 단계적 확대를 낳아 보다 심각한 범죄들이 덜 해로운 다양한 범죄유형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한다(Clarke, 2000: 101). 대표적인 사례로는 뉴욕시 지하철 매표소에 표적강화 기법이 적용되었을 때, 몇몇 절도범들은 출입문 밑에다 석유를 붓고 방화하겠다고 위협하는 식으로 매표소를 공격한 경우이다(Dwyer, 1991).

그렇지만 당시 지하철 관계자들은 즉시 매표소에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였다. 즉 상황적 범죄예방은 예방기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까지도 주목함으로써 전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클락은 진단한다. 단계적 확대의

위협이 (지하철 매표소에 대한 석유 공격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상황적 범죄예방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의 의무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락의 시선에는 단계적 확대 관념이 수많은 범죄 상황들과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우발적인 상점절도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이 재화를 취득하는 다른 방법들(이를 테면 주부의 장바구니를 강제로 빼앗는 식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Clarke, 2000: 101). 뿐만 아니라 범죄의 전이를 입증하는 경험적인 근거는 취약하다고 반박한다. 헤셀링(Hesseling, 1994)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이 검증한 55개 연구 중 22개에서는 전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나머지 33개의 연구들의 경우 몇몇 전이 현상이 나타났지만 예방된 범죄보다 전이된 범죄가 더 많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범죄의 전이 문제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적 범죄예방으로 인해 범죄가 부자로부터 빈자에게로 옮겨가게 될 경우 타인, 즉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대가로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보상을 취득한다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황적 예방론자들도 부자들의 침입경보기가 절도범을 가난한 이웃으로 전이시킬 수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전이 가능성은 정부가 공공캠페인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도록 유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문제임을 인정한다(Clarke, 2000: 101-102).

그러나 비록 자동차절도를 막기 위한 차량 추적 장치가 한동안 이러한 위험을 야기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범죄가 부자로부터 빈자에게 전이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물들은 거의 없는 편이라는 것이 클락의 생각이다(Clarke, 2000: 102). 오히려 상당수의 연구들은 상황적 예방 효과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Pease, 1991; Painter and Farrington, 1997; Scottish Office Central Research Unit, 1995; Poyner, 1991; Scherdin, 1986; Masuda, 1992; Hakim et al., 1995; Clarke, 2005: 52-53). 하나의 예로써 그는 최근 미 동북부 지방에서 실시된 추적 장치의 이용이 지역사회에서의 차량 절도의 전체 수준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계량경제학적 평가결과를 제시한다(Ayres and Levitt, 1998). 더욱이 그는 차량절도범들이 어떤 차에 추적 장치가 부착되

어 있고 어떤 차에는 그 장치가 없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것은 보다 일반적인 억제효과를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가난한 차 소유주들은 부유한 차 소유주들(차량 추적 장치는 고가이다)의 예방적 노력들로부터 ‘무임승차’의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펠슨과 클락(Felson and Clarke, 1997) 또한 부유한 동네에서의 효과적인 범죄예방의 결과 유사한 이득들이 가난한 동네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상황론자들의 반론의 요지는 ‘전이’가 전통적 범죄이론에 근거한 관념일 뿐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범죄이론의 기질론적 가정들에 의하면, 기회가 차단될 경우 범죄의 전이는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간주한다. 합리적 선택이론 역시 범죄의 전이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체된 범죄기회가 범행의 위협이나 노력을 더 많이 요구하지 않고 유사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때 나타날 것으로 본다. 상습적으로 상점절도를 해 온 주부가 쇼핑몰에서 보안을 강화했다고 해서 거리의 강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범죄가 전이되는 정도는 생각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상황적 범죄예방론자들은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이문제는 상황적 범죄예방 옹호자들에게도 남아 있는 숙제이다. 특히 악의적인 전이의 위험성을 경계하고자 한다. 클락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범죄자의 적응 문제는 상황적 예방의 결과물들에 대한 평가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Ekblom and Tilley, 2000). 범죄자의 적응이란 어떤 장소에 한동안 예방 수단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범죄자 집단들이 범죄에 취약한 새로운 대상들을 발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예방자와 범죄자간 사이에 나타나는 군비경쟁과도 같다(Ekblom, 1999). 개별 범죄자들은 예방 수단들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려 한다. 따라서 상황적 예방은 예방기법들의 기대하지 않은 결과들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 윤리논쟁

상황적 예방을 둘러싼 윤리논쟁의 요지는 크게 요새화와 사회적 배제, 피해자 귀책, 그리고 전체주의적 통제와 개인적 자유에 대한 위협의 문제 등으로 세분화된다. 무엇보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황량하고 부주의한 요새 사회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높은 담과 보안장치에 기초하여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소위 ‘문지기 있는 주거단지’(gated communities)들은 요새 사회를 반영하는 가장 최근의 산물로 인식된다.

상황적 범죄예방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특히 ‘표적강화’ 기법들에 기초한 전략은 범죄의 공포에 사로잡힌 시민들이 스스로를 집안에 가둬두고 이웃을 피하며 오직 일을 하거나 꼭 필요한 업무에만 집밖으로 나오는 요새 사회의 급박성에 대한 두려움들을 자아냈다. 비판가들은 그것이 해당 인구집단의 소외를 증가시키고 공동체 생활을 점차적으로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황적 범죄예방 옹호가들은 사실상 상당수의 상황적 범죄예방의 실천은 이러한 우려와는 정반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에 대해서도 감시의 시선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유대와 사회통제를 강화한다고 반박한다(Clarke, 2000: 102). 뿐만 아니라 ‘문지기 있는 주거단지’를 둘러싼 윤리적 고려사항들이 좀더 보편화된 주거형태인 아파트 단지에서의 제한적 출입과 관련된 것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한다(Clarke, 2000: 103). ‘문지기 있는 주거단지’에 대한 몇몇 비판들은 확실히 그 단지들은 오직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렇지만 클락은 최근 미국에서 건립된 이러한 주거단지의 상당수는 중간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결과(Blakely and Snyder, 1998)를 반증사례로 제시한다. 여기에 덧붙여 상황적 범죄예방 옹호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역에서도 ‘문지기 있는 주거단지’와 유사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가난한 동네를 대상으로 수행된 상당수의 연구들은 거리의 방벽들이 성매매(Matthew, 1993)나 갱범죄(Lasley, 1998) 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지기 있는 주거단지’에 대한 진실은 비판가들에 의해 묘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 옹호가들의 입장이다. 그들에 의하면 폐쇄적 주거단지들은 단지 부자들을 위한 것만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분개하는 장소도 아니다. 그 폐쇄적 주거공동체들은 단순히 출입구에 경비원이 근무하는 방벽이 설치된 주거단지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출입 장벽은 대개 실제적이라기보다 상징적이며 출입을 금하기보다는 출입을 하는 데 좀 불편함이 따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락(2000: 103)은 ‘문지기 있는 주거단지’에 대한 윤리적 평가와 관련하여,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이득들은 공공의 접근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서 비롯되는 가능한 해(von Hirsch and

Shearing, 2000)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윤리논쟁과 관련된 비판의 두 번째 요지는 시설에의 접근 통제나 범죄자 우회기법과 같은 “상황적 범죄예방의 활용은 쇼핑몰, 주차장, 레저시설과 같은 공공장소로부터 소위 ‘바람직스럽지 못한 집단들’(부랑자, 홈리스, 소수자, 청년실업자 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옹호론자들은 두 기법들은 면밀하게 표적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배제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접근통제는 사무실 밀집지역이나 공장과 같이 사적인 시설에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안된 것일 뿐, ‘바람직스럽지 못한 집단들’을 쇼핑몰이나 자치단체의 공원 등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적 예방은 이러한 장소에서는 누구나 범죄기회들을 추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도시상업구역과 쇼핑몰과 같은 공공장소 혹은 준-공공장소로부터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인지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공공경찰의 ‘질서-유지’ 활동이나 사설 경비회사의 사적인 치안활동에 의해 조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Clarke, 2000: 104). 클락은 이러한 치안활동 형태들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상황적 예방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자신들이 지향하는 보다 협소한 의미에서의 상황적 범죄예방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범죄자 우회시키기’(deflecting offenders) 역시 배제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옹호론자들은 그 목적이 범죄자들을 적절한 표적들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범죄자 우회시키기’의 한 예로서 술집들이 문을 닫는 시간에 마지막 버스를 배차시키는 것은 늦은 밤 음주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도심에서 나가도록 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본다. 고등학교 주변 골목길을 폐쇄하는 것은 등교 길에 학생들이 자동차를 파손하거나 뒤뜰에 남겨진 물건들을 훔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클락(2000: 104)은 상황적 기법들의 사용은 특정 문제와 상황들을 표적으로 삼고 범죄 위험성이 높은 특정 집단과 목표들을 배제할 뿐이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집단’에 대한 의도적 배제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한다.

피해자 귀책과 관련된 비판은 ‘방어적인’ 상황적 범죄예방 기법들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Karmen, 1984). 이에 대해 클락(2000: 107)은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사전 인지를

강조함으로써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한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것은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어느 정도의 비난책임은 감수해야 마땅하다는 입장과의 같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려지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결심한다면 그들은 그 결과에 대한 몇몇 책임을 떠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상황적 범죄예방 기법들은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판 진영에서 제기하는 보다 심각한 쟁점은 상황적 범죄예방이 사회의 군단화를 유도하고, 준법시민들로 하여금 진저리를 칠만큼 불편한 예방조치들을 인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목적인 바를 달성한다는 주장이다. 상황적 예방은 그 출발부터 전체주의 사회(Big Brother)의 망령과 침투적인 감시의 위협(최근 테크놀로지상의 발달에 의해 더욱 가중되는)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즉 공적 공간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 과속단속 카메라, 발신자 표시 등 상황적 범죄예방 수단들은 시민들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이 개인의 시민적 자유나 사생활, 익명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들에 대해 클라크(2000)는 이러한 비판은 위협의 실체에 대한 본질적 탐구가 결여되어 있고 그러한 침해의 회피 가능성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반론을 편다. 한마디로 비실제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기술적 진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범죄감소라는 이익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클라크는 항공기 탑승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수속을 예로 들어 이 쟁점을 풀어간다. 공항에서의 보안수속을 거치는 일은 확실히 지루한 일이겠지만, 1970년대에 도입된 수화물 검사와 다른 예방 기법들로 인해 테러범들의 항공기 폭파는 매우 드물게 일어났고 항공기 공중 납치도 대부분 제거되었다는 것이다(Landes, 1978; Wilkinson, 1986). 또 다른 예로서 개인의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그것을 기억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일은 불편하다. 그렇지만 개인 비밀번호가 없다면 도난당한 은행카드가 누군가에 의해 곧바로 사용되는 것은 너무도 용이한 일이 될 것이고, 반면 그러한 보안장치 덕분에 많은 현금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거나 밤낮으로 어느 때나 현금을 찾을 수 있는 편리함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상황적 기법들은 고객들에게 비휘방적인 방식으로 작동함으로써 오히려 고객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고객들의 규범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는 고객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작동하며 고객들은 그러한 감시가 자신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자들의 우려와 달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에 대한 이상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심이 겹쳐 상황적 범죄예방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옹호론자들의 반-비판의 요지이다. 그들 생각에는 만약 예방 기법들이 어떠한 보상적 이득도 없이 불편함이나 성가심의 대상이 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논리에 따라 퇴출될 것이다(Duff and Marshall, 2000).

옹호론자들이 보기에 오히려 더 큰 위험은 유용한 테크놀로지들의 효과에 대한 비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이 사용되지 못하거나 그 도입이 지연되는 일이다. 더욱이 예방적 테크놀로지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들에 대해 공개토론이 이루어진다면 테크놀로지의 효과성을 방해하지 않고 그 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 테크놀로지의 수정을 낳을 것이므로, 상황적 범죄예방의 실천으로 인한 전체주의 사회의 군단화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비판가들의 주장처럼 심각하지도 않고 회피 불가능한 문제라는 아니라는 것이다.

Ⅲ. 논 평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비판과 반 비판의 논의들은 이 관점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포괄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상황적 예방의 옹호론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들에 경험적은 근거로써 대응한다. 하지만 그 항변이 비판적 논의들을 성공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보기는 힘들다.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과학의 특성상 기회의 확대가 범죄의 증가를 실제로 낳을지 실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회와 범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 옹호론자들도 인정하듯이 범죄자의 ‘적응’은 이 쟁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더욱이 상황적 예방의 혜택이 가난한 지역 사람들에게도 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원치론적이라는 인상이 짙다. 오히려 현실은 부유한 계층들에게 사적·공적 보안이 집중됨으로써 ‘보안의

계급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옹호론자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상황적 예방이 초래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되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주류범죄학은 상황적 예방의 장점과 범죄학적 의미들을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상황적 예방의 비판과 항변에서 도출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들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1. 이론적 함의

가. 행위의 합리성과 감성성의 포용

상황적 범죄예방론은 범죄를 기회와 주변상황을 고려한 인간(범죄자)의 합리적 선택 행위의 결과로 본다.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이 관점은 모든 행위자들이 경제적인 자기 이해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동주의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과 같은 학문분과들의 비판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규범적·감성적 비판의 요지는 특별한 감정 혹은 비이성적 요인들이 때로 매우 강력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전통적 양식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행위에 대한 규범적·감성적 모델(Hayward, 2007)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선택하는 대다수의 행동들은 규범요소들과 감정에 의해 한정되고 도구적 사고와 논리적인 경험분석은 거의 의사결정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약탈적 재산범죄의 상당수는 높은 수준의 감정적 혹은 표출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은행강도가 범행의 성공으로부터 '도구적인 경제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는 또한 그 행위로부터 상당한 문화적·상징적 보상들을 얻을 수 있다. 은행강도들은 종종 범죄자 세계에서 칭송되어진다. 심지어 은행강도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범죄자 집단들과 그 하위문화 속에서는 높은 지위를 부여받는다(Hayward, 2004).

이렇듯 상황적/합리적 선택의 접근은 '덜 심각한 범죄/알파한 목적을 지닌 범죄'나 '양적인 범죄'의 감소에는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지만, 대부분의 공중을 위축시키고 지역사회 부조화를 야기하는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소위 '표출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덜 효과적인 수단이다(Tralser, 1986; Morrison, 1995: 제16장; Hann and Vos,

2003; Hayward, 2007: 237에서 재인용). 엑섬(Exum, 2002) 또한 폭력범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알코올 혹은 분노의 효과에 대한 전형적인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 선택모델은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를 설명하는 데 부적합하며, 다만 ‘냉정하게 행해지는’ 범죄행위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다고 말한다. 더욱이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범죄행동이 후기 현대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폭주, 마약사용, 축구경기장의 훌리건, 거리의 방화, 노상강도, 폭음, 갱집단 일원, 집단 패싸움 등과 같은 위험을 내포한 범죄행동들 배후에 놓여 있는 감정들은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1997: 146; Hayward, 2007: 239에서 재인용)이 언급한 ‘감각-추구자’(sensation-gatherers)를 특징짓는 일련의 감정들이다. 이러한 흥분의 불법적 형태들은 일상생활의 진부함으로부터의 탈출, 새로운 가능성과 쾌락의 세계로의 진입을 나타낸다. 따라서 범죄의 유혹은 대개 그것이 제공하는 새로운 종류의 감각으로부터 유래한다. ‘광란적이고’ ‘흥청망청하는’ 문화와 결합된 청소년들의 과도함에서부터 코카인과 헤로인과 같은 마약 사용의 증가에 이르는 일련의 모습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험이 클수록 매력도 더 큰 것으로 간주된다. 범죄활동과 범죄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들의 활용이 어떤 유형의 범죄 추구하고 결합된 도전과 흥분을 사실상 증폭시키고 범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범행방법들을 개발하도록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Ekblom, 1987; Mayhew et al., 1992). 예를 들어, 폭주족들은 과속단속 카메라들을 하나의 도전으로 간주한다. 보안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훔치거나 파괴하기, 보안시스템이 반응하기 전에 도주하기, 쇼핑몰에서 보안요원들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청소년, 쇼핑센터의 보안요원들의 인내의 한계에까지 상황을 악화시키기, 밀착 모니터링과 감시 상황에서 담당자들을 테스트하기 등은 새로운 형태의 모험추구적 범죄행동들이다(Van Dijk, 1990). 모험추구적 범죄자들은 사실상 그들의 행동들을 억제하기 위해 세워진 바로 그 기호들에 끌린다(Hayward, 2007: 244). 바우만은 이를 두고 새로운 욕망의 각성이 규범적 규제를 대체한다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롭고 보다 짜릿한 경험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반면, 과거의 규범체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거나, 최소한 위반행동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잠시 억압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헤이워드는 후기 현대 소비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표출적·

감정적 범죄유형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범죄행동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을 재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력을 발견하는 누군가에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하고 구속받지 않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 (고도의 도구적 결정에 의해) 충분한 양의 알코올을 마실 것이다. 해이워드는 이러한 사례로부터 나란히 작동하는 합리성과 쾌락/흥분(수많은 표출적 범죄성의 형태에서 작동하는 감정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 ‘합리적인’ 행동의 보다 세련되고 다차원적 모습을 지닌 개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심미적·감성적 국면들을 포함하고 있는 보다 포용력이 있는 합리성 개념(Yar, 2005: 414; Hayward, 2007: 242에서 인용)을 창출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나. 성향과 상황, 개인과 환경의 연계 분석

상황적 범죄예방을 비판하는 진영과 이를 옹호하는 진영은 ‘범죄자’의 장기적인 ‘성향’(dispositions)과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즉각적인 ‘상황’(situations)의 특징들을 서로 대립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스미스(Smith, 2000)는 전통적인 성향 이론과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상황 이론 간의 융합을 시도한다. 하나의 유기체는 즉각적·구체적 상황 속에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비로소 한 사람이 된다. 동시에 일단의 우연성들은 몇몇 사람들이 그 사실들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그것들에 비추어 행동할 때 비로소 하나의 상황이 된다. 인간은 상황에 대한 행동과 상황 속에서의 행동을 통해 존재하게 되며, 상황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인간은 부분적으로 상황들에 의해 구성되고, 상황은 인간들에 의해 구성된다.

이렇게 인간과 상황이 밀접하게 상호종속적이라면 이론이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초점을 이행시킴으로써 발전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대신 핵심적인 문제는 인간과 상황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점에 동의할 수 있다면, 상황적 예방은 근본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밝혀진다.

상황적 범죄예방론의 최대 쟁점은 범행 기회의 감소가 범죄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도덕 혹은 탈도덕화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내면적·고정적인 태도보다는 상황분석적인 행위의 변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행위는 습관, 학습, 경험 등에 기초하는 인지과정이나

인식유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행위변화에 따른 태도의 변화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범죄기회의 차단으로 인해 범죄행동에 변화가 생긴다면(범죄를 단념하게 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범죄에 대한 태도와 성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적 예방이 “사람은 변화시키지 않고 상황만 변화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옹호론자들은 그것이 특정상황에서의 도덕적 자각을 위한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고취시키는 데 활용되는 특별한 수단들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일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도덕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Clarke and Weisburd, 1994).

확실히 특별하고 구체적인 상황은 특정 범죄의 발생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상황의 영향은 그것들이 점유하는 시공간을 넘어서 확장된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그들이 접하는 상황들에 의해 틀 지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특성들(능력, 습관, 지식, 사회세계에 대한 인식방법, 도덕률 등)이 존재하며, 이것들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의 생애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들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범죄의 즉각적인 기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순응 혹은 이탈의 장기지속적 성향들의 변정도 가능할 것이다. 범죄학의 핵심과제는 어떻게 기대, 습관, 사회통제, 자기통제가 즉각적인 계기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조우하는 상황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Smith, 2000: 148).

스미스의 권고대로 성향과 상황은 서로에 대해 대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특정한 방향으로의 행동이 결정되기도 한다. 역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선택하는 데 개인의 성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은 주어진 상황에서의 개인의 선택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범죄의 원인으로 알려져 왔던 규범적 행위에 대한 기대, 습관과 같은 기질이나 성향적 요인, 사회통제 혹은 자기통제와 같은 통제적 요인들이 상황이라는 즉각적인 계기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음으로써 범죄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탐구해야만 한다.

2. 실천적 측면

가. 상황적 예방과 사회적 예방의 통합적 접근

지금까지 정책결정의 요인은 원인보다 실행가능성과 비용의 문제에 의해 좌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클락(2004)의 지적처럼 정책분석가들의 관심과 사회학자들의 관심이 서로 다른 것은 분명하다. 정책분석가는 무엇이 행해질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반면, 사회학자들은 모든 종류의 인과적 설명에 관심을 갖는다. 통상적으로 정책적 선택사항에 대한 평가는 원인들에 대한 이해와 거의 관련이 없으며, 실용적인 고려사항들은 정책분석가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을 채택하게 한다. 정책분석가들은 가장 강력한 혹은 가장 근본적인 범죄행동의 원인에는 별 관심이 없다. 대신 그들은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능률적인 범죄감소 방법들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정책분석가의 관심과 사회학자의 관심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서는 곤란하다. 정책분석가들도 범죄의 원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회학자들은 기회가 범죄원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다면 상황적 범죄예방과 사회적 범죄예방은 대립이 아닌 보완의 논리로 통합될 수 있게 된다. 즉 수요측면에 초점을 두는 사회공학과 기회 및 공급측면의 상황적 조정의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지나치게 후자만을 강조하는 것은 범죄문제에서 사회정의의 쟁점을 탈각시켜버리는 것이다.

범행 기회의 감소는 범죄자들에 대한 교육, 교정 및 처우 프로그램들과 대비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정책 유형들은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 보충적이다 (Smith, 2000). 왜냐하면 그것들은 서로 다른 표적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처우, 교정, 재활은 형사사법 체계에 의해 포착되었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것인 반면, 기회감소는 대개 형사사법 체계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의 기회와 보상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전혀 다른 인구집단들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들은 인생 경로의 서로 다른 지점을 표적으로 삼으며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다. 기회감소는 특정 유형의 범죄를 줄이려는 것이다. 교정, 재활, 혹은 처우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가능한 옵션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처벌받는 사람들에게 학습, 성장, 발달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도덕적 의무감이 내재하고 있다. 빈

곤지역에서의 취학 전 교육은 개선된 교육적 성취, 낮은 실업률, 높은 소득,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조기에 참여한 아동들의 낮은 범죄율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이득들을 산출할 것이다. 윌슨(1975)이 지적했던 것처럼, 취학전 교육, 일자리 창출, 사회적 지지와 같은 토대가 넓고 값비싼 사회프로그램들은 범죄예방 이득에만 준거해서 평가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득들의 범위에 준거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문제가 있는 행동의 수정에 관한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특정 범죄행동에 정책의 범위를 설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지만 정착 필요한 것은 정책초점상의 전환이다. 특정한 문제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대신 긍정적·창조적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전환에는 행동상의 관리가 아닌 제도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여기서의 핵심쟁점은 ‘사회개발’이며, 그것은 구조적 불리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개입주의적 전략들을 포함해야 한다.

나. 범죄예방의 정치학: 보안의 자기결정성

옹호론자들은 상황적 예방 기법들이 토론을 매개로 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요새화와 배제사회의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판가들은 그러한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 회의적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표적을 특정화하기 때문에 오직 사적인 시설들에서 그곳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접근통제로서 활용될 뿐이라는 클락(2000: 104)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적 혹은 준-공적 공간에서의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에서의 청소년들에 의한 사소한 무질서(타인을 밀치는 행동, 다툼, 큰 소리로 부르기 등)는 좋은 예가 된다. 이에 대한 표적화된 행동은 경찰에 의한 질서유지가 아니라 확실히 상황적 범죄예방의 한 형태이다(Shapland, 2000: 118). 쇼핑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감소의 상황적 예방은 상품들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럴 경우 범죄를 중단시킬 수는 있으나 쇼핑몰의 매장도 줄어들 것이다)이 아니라 상품들을 범죄자들로부터 떼어놓는 일이다. 쇼핑몰 자체 통제와 경찰통계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은 청소년이다(Shearing and Stenning, 1987; Shapland, 1995). 따라서 가장 손쉽고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예방기법은 쇼핑몰에 그러한 모든 청소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될 것이

다. 일반적으로 낮은 청소년의 구매력은 이러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이미 범행이 알려진 개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일은 매우 어렵다. 대신 잘못을 저지를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것이 보다 손쉽다. 이처럼 상황적 범죄예방은 프로파일에 기초한 배제의 문제(von Hirsch and Shearing, 2000)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쉐플랜드(Shapland, 2000)는 클락(2000, 2005)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배제의 문제를 논의한다. 그는 상황적 예방의 관점을 하향적 관점, 즉 정부의 관점이라고 평가한다. 하향적 관점에서 본다면, 쇼핑물로부터의 배제의 총체적 부담은 배제되는 소수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쇼핑할 수 있다면 정당화될 것이다. 하향적인 정부의 관점이나 쇼핑센터의 관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담-이익의 방정식은 이익이 더 많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명날 것이다. 하지만 부담-이익의 균형을 쇼핑물 근처의 가난한 지역공동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균형은 변화될 것이다. 아마도 배제되는 그 지역주민들은 쇼핑물을 부러움으로 바라볼 수만 있을 뿐이고 대신 주변의 다른 열등한 시설들을 이용해야만 할 것이다.

쉐플랜드가 보기에 상황적 범죄예방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는 이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연적으로 무엇을 산출할지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Shapland, 2000: 116).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으로 범죄를 전이시키거나 요새사회를 만드는 것은 상황적 범죄예방의 내재적 특성이 아니다. 대신 자원과 지역사회들 간 범죄율의 분포가 불공평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황적 예방을 적용한다면, 이득과 부담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을 것이다.

쉐플랜드는 순수한 상황적 예방의 효과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담으로 고통 받는 지역사회 외부로부터의 긍정적인 행동(예를 들면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²⁾ 이때 정부의 긍정적인 행동은 하향식 공리주의와는 다른 원리들에 기초해야 한다. 대안으로 그는 상향식 공리주의에 기초한 행동을 제안한다(Shapland, 2000: 117). 그가 상정하는 상향식 공리주의는 해로운 결과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득

2) 예를 들어 클락은 '문지기가 있는 주거단지'(혹은 영국의 경우처럼 교통소음 방지장치와 이방인들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웃들의 전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 등)는 빈곤지역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나, 쉐플랜드는 빈곤지역에는 정부의 차별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한다.

이 모든 사회계층의 부담을 상쇄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자원이 부족한 사회집단들의 부담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유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적으로 그것은 인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평등원리에 기초할 수 있다. 이것은 보다 보편적인 관점을 위해 이득-부담의 방정식을 포기한다. 대신 해악이 최소가 되는 방식으로 모든 인구집단과 개인들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예방은 근본적으로 정치학에 관한 것이다(White and Sutton, 1997). 약자 및 주변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지역사회 부조의 개발과 사회정의를 위한 운동의 선결조건이다. 범죄예방의 정치적 본질을 인식한다면 상황적 범죄예방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다양한 전략들의 토대를 이루는 서로 매우 다른 사회적 이해들에 대해 충분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McNamara, 1992). ‘안전한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특정한 개념들을 증진하고 범죄예방의 틀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개발자, 부동산 소유주, 회사, 대규모 프로젝트 기업가, 지역 계획가, 학교당국, 중소기업, 중상계층 거주민들의 역할을 논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득이 낮은 거주민, 홈리스,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성, 청소년, 소수인종집단들의 특별한 역할과 지위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은 감시, 통제, 배제의 기술적 과업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사람들을 추방하도록 디자인하는 대신 주변화된 사람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적 포섭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이트와 서튼의 지적대로 범죄예방의 정치학은 근본적으로 사회공간과 지역자원에 대한 투쟁의 문제, 자신의 사회환경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의 문제이다.

클락(2000)은 상황적 범죄예방에 제기되는 ‘배제사회’의 테제에 대해 상황적 범죄예방이 오히려 감시적 유대를 공유함으로써 ‘방어공간’과 공동체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기계나 시스템이 인간의 노력(범죄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직접적인 감시의 노력)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Lab, 2007). 공동체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당면문제와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 대화를 통한 공동체 문제의 학습과 공동의 문제해결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

IV. 맺음말

상황적 범죄예방을 둘러싼 비판과 항변의 논쟁들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성향요인과 기회요인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이론적 과업, 특정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보안을 추구하는 상극의 예방이 아니라 보안의 평등성과 상생의 예방을 추구하는 실천전략의 강구 등 미완의 과제들이 널려 있다.

특히 실천적 과제들은 쉐플란드(2000)가 제기한 범죄학자들의 윤리적 의무를 상기시킨다. 그는 범죄학자들은 만약 어떤 활동이 범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범죄예방 평가나 범죄예방 활동에 착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범죄감소의 윤리는 의료윤리에 비유될 수 있다. 의료윤리에 의하면, 환자나 동물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불이익을 상쇄하리라는 선행연구로부터의 경험적 증거나 이론적 기초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분명 상황적 범죄예방은 적절하게 표적이 설정되어 시행된다면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범죄학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중요한 윤리적 질문들이 존재한다. 제시하는 범죄예방 전략들이 가져올 수 있는 총체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그것이 적용될 범죄유형과 그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고 반대로 누가 영향을 받는지, 범죄감소의 이익을 위해 당사자들이나 이웃이 감수해야 할 압력, 통제, 긴장은 없는지, 그러한 압력, 통제, 긴장의 정도와 본질은 상대적으로 잠재적인 범죄감소 효과와의 관련성에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인권의 기준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지, 개입으로 인해 영향 받게 될 개인, 기업, 지역공동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등에 대해 범죄학자들은 충분히 성찰해야만 한다(Shapland, 2000: 119-120). 윤리적 고려사항들은 어떤 지역사회 의 범죄문제와 지역의 종류에 따라 어떤 기법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 도구, 그리고 효과 및 결과의 평가 도구들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윤리적 성찰이 결여된다면, 특정 범죄예방 기법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크게 부각될지 모르나, 그것들이 초래할 수 있는 불행한 측면은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범죄의 영향은 지역사회에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범죄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피해의 영향이 가장 심각한 사람들은 취약하고 주변화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거나(보험이나 민간경비 등을 활용하여), 지리적으로 벗어나거나 범죄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낮다. 때문에 가장 소외되고 주변화된 사람들이 지역수준에서 의사결정 및 협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범죄예방과 보안의 형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상황적 범죄예방론과 그 기법들 역시 이러한 윤리의 문제들을 성찰할 때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실천기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yres, I. and Levitt, S. D. 1998. "Measuring positive externalities from unobservable victim precaution: an empirical 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ruary: 43-77.
- Bandura, A. 1976. "Social learning analysis of aggression," in *Analysis of Delinquency and Aggression*, edited by E. Ribes-Inesta and A. Bandura. Hillsdale, NJ: Erlbaum Associates.
- Bauman, Z. 1997. *Postmodernity and its Discontents*. Cambridge: Polity Press.
- Blakely, E. J. and Snyder, M. G. 1998. "Separate places: crime and security in gated communities," in *Reducing Crime through Real Estate Development and Management*, edited by M. Felson and R. Peiser. Washington, DC: Urban Land Institute.
- Brantingham, Patrica L. and Brantingham, Paul J. 1995. "Criminality of place: Crime generators and crime attractors."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3: 5-26.
- Brantingham, Patrica L. and Brantingham, Paul J. 1997. "Understanding and controlling crime and fear of crime: Conflicts and trade-offs in crime prevention planning," in *Crime Prevention at a Crossroads*, edited by S. P. Lab. Cincinnati: Anderson Publishing.
- Clarke, R. V. 1980.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and practic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 136-47.
- Clarke, R. V. 1982.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its theoretical basis and practical scope," in *Crime and Justice*, Vol. 4, edited by M. Tonry and N. Morri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larke, R. V. 1992. "Introduction," in R. V. Clarke (ed.)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Guilderland, NY: Harrow & Heston.
- Clarke, R. V. 1995.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in *Building a Safer Society, Strategic*

- Approaches to Crime Prevention,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19, edited by M. Torny and D. Farringt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larke, R. V. 1997.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 Clarke, R. V. 2000. "Situational Prevention, Criminology and Social Values," pp.97-112 in Ethical and Social Issues i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edited by A Von Hirsch et al. Oxford: Hart.
- Clarke, R. V. 2004. "Technology, criminology and crime science,"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XXX: 1-9.
- Clarke, R. V. 2005. "Seven misconceptions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pp. 39-70, in Handbook of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edited by N. Tilley. Portland, OR: Willan Publishing.
- Clarke, R. V. and Homel, R. 1997. "A revised classification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echniques." In Crime prevention at a crossroads, edited by S. Lab. Cincinnati: Anderson.
- Clarke, R. V. and Weisburd, D. 1994. "Diffusion of crime control Benefits: Observations on the reverse of displacement," In Crime prevention studies, Vol. 2, edited by R. Clarke.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 Cornish, D. B. and Clarke, R. V. 2003. "Opportunities, precipitations and criminal decisions," in Crime Prevention Studies. Vol. 16, edited by M. Smith and D. Cornish.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 Crawford, A. 1998.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Harlow, UK: Addison Wesley Longman.
- Duff, R. A. and Marshall, S. E. 2000. "Benefits, Burdens and Responsibilities: Some Ethical Dimensions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pp.17-35, in Ethical and Social Perspectives o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2000, edited by Andrew von Hirsch, David Garland, and Alison Wakefield. Portland, Oregon: Hart

Publishing.

Dwyer, J. 1991. *Subway Lives*. New York: Crown.

Eklblom, P. 1987. "Crime prevention in England: themes and issues," unpublished paper presented at th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November 1987. London: Home Office.

Eklblom, P. 1999. "Can we make crime prevention adaptive by learning from other evolutionary struggles?" *Studies on Crime and Crime Prevention* 6: 27-51.

Eklblom, P. and Tilley, N. 2000. "Going equipped: criminology,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and the resourceful offender."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0: 376-98.

Exum, M. L. 2002. "The application and robustness of the rational choice perspective in the study of intoxicated and angry intentions to aggress." *Criminology* 40(4): 933-66.

Felson, M. and Clarke, R. V. 1997. "The ethics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pp.197-217 in *Rational Choice and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etical Foundations*, edited by G. Newman, R. V. Clarke and S. G. Shoham. Aldershot: Ashgate.

Garland, David. 1996. "The Limits of the Sovereign State: Strategies of Crime Control in Contemporary Societ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6(4): 445-471.

Garland, David. 2000. "Ideas, Institutions and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pp.1-16, in *Ethical and Social Perspectives o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2000*, edited by Andrew von Hirsch, David Garland, and Alison Wakefield. Portland, Oregon: Hart Publishing.

Haan, W. de and Vos, J. 2003. "A crying shame: the over-rationalized conception of man in the rational choice perspective." *Theoretical Criminology* 71(1): 29-54.

Hakim, S., Gaffney, M. A., Rengert, G., and Shachmurove, J. 1995. "Costs and benefits of alarms to the community: burglary patterns and security measures in Tredyffrin Township, Pennsylvania." *Security Journal* 6: 197-204.

- Hayward, Keith. 2004. *City Limits: Crime, Consumer Culture and the Urban Experience*. London: GlassHouse.
- Hayward, Keith. 2007.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and its Discontents: Rational Choice Theory versus the 'Culture of Now'."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1(3): 232-250.
- Hesseling, R. B. P. 1994. "Displacement: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Crime Prevention Studies* 3: 197-230.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 Hommel, R., Hauritz, M., McIlwain, G., Wortley, R., and Carvoith, R. 1997. "Preventing drunkenness and violence around nightclubs in a tourist resort," in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2nd edn), edited by R. V. Clarke. Albany, NY: Harrow & Heston.
- Hope, Tim and Sparks. 2000. "For a Sociological Theory of Situations(or How Useful is Pragmatic Criminology," pp. ,in *Ethical and Social Perspectives o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2000*, edited by Andrew von Hirsch, David Garland, and Alison Wakefield. Portland, Oregon: Hart Publishing.
- Hughes, G. 1998. *Understanding Crime Prevention*.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Jacobs, Jane.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 Karmen, A. 1984.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
- Lab, Steven. 2007. *Crime Prevention: 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s* (Sixth Edition). Matthew Bender & Company, Inc, a member of the LexisNexis Group.
- Landes, W. M. 1978. "An economic study of US aircraft hijacking, 1961-1976."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1: 1-32.
- Lasley, J. 1998. *Designing-out Gang Homicides and Street Assault*. Research in Brief.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Marx, Gary. 1995. "The Engineering of Social Control: The Search for the Silver Bullet,"

- in *Crime and Society*, edited by J. Hagan and R. Peters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suda, B. 1992. "Displacement vs. diffusion of benefits and the reduction of inventory losses in a retail environment." *Security Journal* 3: 131-6.
- Matthews, R. 1993. *Prostitution and Multi-agency Policing*. Crime Prevention Unit Paper 43. London: Home Office.
- Mayhew, P., Clarke, R. V., and Hough, M. 1992. "Steering column locks and car theft," i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edited by R. V. Clarke. New York: Harrow & Heston.
- McNamara, L. 1992. "Retrieving the law and order issue from the right: alternative strategies and community crime prevention." *Law in Context* 10(1): 91-122.
- Morrison, W. 1995. *Theoretical Foundations*. Dartmouth: Ashgate.
- Murray, C. 1990. *Losing Ground*. New York: Arrow.
- Newman, O. 1972. *Defensible Space: People and Design in the Violent City*. London: Architectural Press.
- O'Malley, P. 1992. "Risk, Power and Crime Prevention." *Economy and Society* 21: 252-75.
- O'Malley, P. 1997. "The politics of crime prevention," in *Crime Prevention in Australia*, edited by P. O'Malley and A. Sutton. Sydney: The Federation Press.
- O'Malley, P. and Sutton, A. 1997. *Crime Prevention in Australia*. Sydney: The Federation Press.
- Painter, K. and Farrington, D. 1997. "The crime reducing effects of improved street lighting: the Dudley Project," i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2nd edn), edited by R. V. Clarke. Albany, NY: Harrow & Heston.
- Pease, K. 1991. "The Kirkholt project: preventing burglary on a British public housing estate." *Security Journal* 2: 73-77.
- Poyner, B. 1988. "Video cameras and bus vandalism." *Journal of Security Administration* 11: 44-51.

- Poyner, B. 1991. "Situational prevention in two car parks." *Security Journal* 2: 96-101.
- Scherdin, M. J. 1986. "The halo effects: psychological deterrence of electronic security system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September: 232-5.
- Scottish Office Central Research Unit. 1995. *Running the Red: An Evaluation of the Strathclyde Police Red Light Camera Initiative*. Edinburgh: Scottish Office.
- Shapland, J. 1995. "Views on crime: public and private problems," in *Public And Private Provisions In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of the British Criminology Conference 1989*, edited by R. Light. Bristol; Bristol Center for Criminal Justice,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 Shearing, C. and Stenning, P. (eds.) 1987. *Private Policing*. Newbury Park, CA: Sage.
- Sherman, L. W. et al. 1997. *Preventing Crime: What Works, What Doesn't, What's Promising*. Office of Justice Programs Research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Smith, David. 2000. "Changing Situations and Changing People," pp. ,in *Ethical and Social Perspectives o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2000*, edited by Andrew von Hirsch, David Garland, and Alison Wakefield. Portland, Oregon: Hart Publishing.
- Smith, M. J., Clarke, R. V., and Pease, K. 2002. "Anticipatory benefits in crime prevention," in *Analysis for Crime Prevention. Crime Prevention Studies*, Vol. 13, edited by N. Tilley.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 Sykes, G. and Matza, D. 1957.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 theory of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 664-70.
- Trasler, G. 1986.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and rational choice: a critique," i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edited by K. Heal and G. Laycock. London: HMSO.
- Van Dijk, J. 1990. "Confronting crime: the Dutch experience," in *Together Against Crime: Responses to the South Australian Crime Prevention Strategy*, edited by J. Fisher, S. Millbank and M. Maoum. Adelaide, Attorney-General's

Department.

Von Hirsch, A. 1976. *Doing Justice: The Choice of Punishments*. New York: Hill and Wang.

Von Hirsch, A. and Shearing, C. 2000. "Exclusion from public space," pp.77-96 in *Ethical and Social Issues i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edited by A Von Hirsch et al. Oxford: Hart.

Von Hirsch, A., Garland, D., and Wakefield, A. 2000. *Ethical and Social Issues i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Oxford: Hart Publishing.

White, Robe and Sutton, Adam. 1997. "Crime Prevention, Urban Space and Social Exclusion." *The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Sociology* 31(1): 82-99.

Wilkinson, P. 1986. *Terrorism and the Liberal State* (2nd edn).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Wilson, J. Q. 1975. *Thinking about Crime*. New York: Vintage.

Wortley, R. 1998. "A Two-stage Model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tudies on Crime and Crime Prevention* 7: 173-88.

Wortley, R. 2001. "A classification of techniques for controlling situational precipitators of crime." *Security Journal* 14: 63-82.

Wortley, R. 2002. *Situational Prison Control: Crime Prevention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Yar, M. 2005. "The novelty of 'cybercrime': an assessment in light of routine activity theory."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2(4): 407-28.

A critical review of the discourses o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Kim, Seong-Eon^{*}

This article addresses two kinds of questions about situational crime prevention(SCP). The first concerns the practical ethics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o what extent do SCP strategies unduly constrain people's liberty of movement? Will such strategies involve increased scrutiny of people's everyday activities, and what problems are involved in such scrutiny? Can ethical principles be developed that would help distinguish acceptable from unacceptable forms of interventions? The second kind of question concerns SCP's position in criminological discourse and in the contemporary culture of crime control. To what extent does SCP represent a shift in thinking about the nature of crime, and about the prospects and strategies for dealing with it? What does the emergence of SCP affect our expectations concerning crime prevention in a late modern society? What are the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SCP? In discussing the ethics and the social aspects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it is essential to address and analyse the criticisms and the counter-arguments on the strategies, the ethical values, and the social norms and practices which are involved in SCP. This article embarks upon this task, and suggest the value of that undertaking.

❖ Key word: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opportunity, exclusionary society, surveillance, crime displacement, blaming victims

투고일: 2009. 2. 11 / 심사(수정)일: 2009. 2. 23 / 게재확정일: 2009. 2. 27
--

^{*} Professor, Division of Public and Police Administration, Kyungnam University, Ph.D. in Sociology